



2020. 2. 13. (목)
아산현장대책본부

기자 회 견 자 료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-
지 역 경 제 활 성 화 대 책



충청남도
(경 제 실)

순 서

I . 최근 경제상황	2
II . 경제위축 극복 대응방향 및 추진체계	4
III .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과제	5
1. 소상공인,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활성화 시책 강화	
2. 자동차, 디스플레이 등 道 주력산업 위축 대응	
3. 수출통상 지원 및 투자 유치 강화	
4.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및 지방세 지원방안 강구	
5. 전통시장 등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 활성화	
6. 관광업계 피해 극복을 위한 관광활성화 및 지원	
7. 고용위축 대비 적극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강구	
8. 불공정 거래행위 및 소비자 피해예방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	

- 〈참고〉 1. 아산시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
2. 정부발표 지원시책 동향

- ◆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충남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 확대 우려

1 경제 동향

- ① (국외)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, 사스보다 클 것으로 전망
- 세계 경제 피해액을 최대 1,600억 달러(192조원) 추정
 - '03년 사스때 세계 GDP중 중국 세계경제 비율(43%수준)이 '19년 기준 4배(163%)로 확대
 - ※ '03년 사스때 당시 세계 경제 피해액 400억 달러(48조원) 감소
- ② (국내) 국내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숙박·음식점 등 서비스산업 위축, 중국 생산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시 자동차 부품산업 등 타격, 대중국 수출기업 피해 등 경제적 타격 예상
- 숙박, 연회 예약 취소율 급증(80~90%) 및 신규예약 감소
 - 소비자 불안 심리로 인한 소상공인, 전통시장 고객·매출 감소
 - 지역행사 축제 취소 및 연기 추세 ※ 도 지역행사 100명이상 52개 행사 중 13개 취소
 - ※ (대중국 수출) 우리나라 25%, 우리 도 29.4%

2 주요 산업별

- ◆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항공과 정유화학, 유통업계 타격 전망
반면,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자 동 차	■ 중국산 부품 공급차질로 생산차질 불가피, 단 글로벌 재고가 많아 감산후 V자 반등 기대, 조업차질은 단기에 그칠것으로 전망
철 강	■ 국내 건설공사 및 공장가동 중단 지속시 단기수요 타격, 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고로 가동률과 함께 반등
반 도 체	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, 세트수요 둔화 및 생산 차질에 따른 잠재적 악영향 불가피
디스플레이	■ 수요 둔화보다 공급축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해 패널가격 상승 수혜
석유화학	■ 직접적 영향보다는 마진 축소로 인한 실적 악화 가능성 ※ 글로벌 원유 수요가 50만 배럴 감소 추정

※ 자료출처 : 유진투자증권(중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진단 보고서)

〈 現 經 濟 狀 況 診 斷 及 影 響 分 析 〉

충남연구원(경제동향분석센터)

□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와의 연관성

- (확산추이)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 보다 치사율은 낮으나, 감염 속도는 신종플루 보다 빠름

※ 코로나19 감염자 수 844명(1.23.) → 40,234명(2.9.)

- (경제연관성)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 등 중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둔화, 전기·전자, 자동차부품 등 주력 국내산업의 타격 우려

□ 경제 분야별 충격

- (금융시장) 중국, 아시아, 국내 등 주가가 급락하다 반등하였지만, 감염증 발병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

- (실물경제) 중국 공장의 가동중단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 우려
 - 다국적 기업의 중국시장 의존도 증가로 대외 파급력이 사스 당시보다 커질 우려

※ 국내 제조업 중국 의존도는 16~45% 수준, 특히 전자기기 부문 등의 의존도가 높음
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중국 현지 부품공장 일시휴업으로 공장가동 일시 중단(2.7~2.11)

□ 충남경제 영향

- 관광·여행업, 음식료업, 숙박업, 컨벤션, 회의 관련업, 문화체육 관련 업종 등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산업에 악영향 우려

- (중국 관광객 감소) 전체 관광객의 30% 이상을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어 관광·여행 산업의 타격 불가피

- (내국 관광객 감소) 중국인 관광객 감소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

* 메르스 사태(40% 감소)를 가정할 경우 생산액 감소 1조 490억원, 고용인구 12,584명 감소 예상

- 대 중국 수출액 비중(29.4%, '19.기준)이 높아 산업 생산 및 소비 감소 우려

- 특히, 충남은 자동차 산업 비중(12.93%)이 높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부품 조달 차질시 심각한 타격

- 1주간 도내 자동차 중단시 4,626억원 생산 감소, 취업자 1,077명 감소 예상(충남연 김양중)

< 가정 시나리오, 산업별 피해금액(예상) >

산업별	가정	전국 GDP		충남 GRDP	
자동차	1개월 가동 중단	0.9% ↓	17조 4,793억원 ↓	1.1% ↓	1조 3,452억원 ↓
철강	10% 생산 차질	0.2% ↓	2조 9,710억원 ↓	0.1% ↓	1,254억원 ↓
반도체	10% 생산 차질	0.4% ↓	7조 8,176억원 ↓	0.4% ↓	4,597억원 ↓
디스플레이	10% 생산 차질	0.5% ↓	9조 6,325억원 ↓	2.2% ↓	2조 6,138억원 ↓
석유화학	10% 생산 차질	0.3% ↓	5조 2,681억원 ↓	0.4% ↓	4,392억원 ↓

↳ 도내 5대 핵심산업중 전국적 영향이 큰산업은 자동차, 충남에서는 디스플레이이며, 철강은 가장 영향이 적음.

1 대응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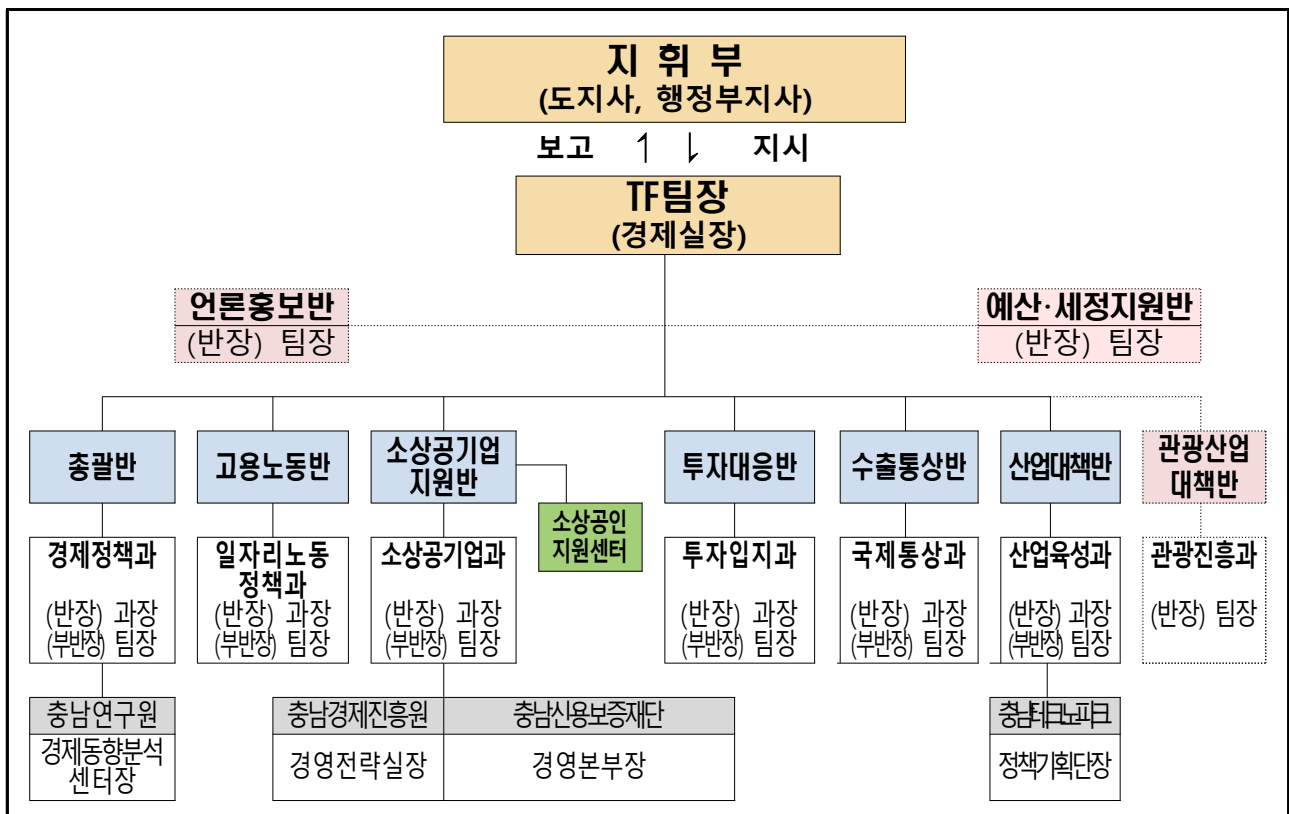
- ① 실국, 관련기관간 공조 협업 강화를 위한 경제분야 긴급대응 추진체계 구축·운영
- ② 소상공인·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 등 규모 확대
- ③ 맞춤형 수출통상 지원 및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
- ④ 자동차, 디스플레이 등 道 주력산업 위축 선제 대응
- 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소비 활성화

2 「지역경제 상황대응 T/F」 운영(2.7~)

- (구성) TF팀장 : 경제실장 / 대책반 : 9개반 10개 부서, 5개 기관 참여
 - 9개반 : 총괄, 고용노동, 소상공기업지원, 투자대응, 수출통상, 산업대책, 관광산업대책, 언론홍보, 예산·세정지원

※ 경제위축 심화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응대책본부로 전환 운영

- (기능) 정부·업계 동향파악, 기업애로 해소 및 피해지원 시책 발굴·시행



III

지역경제 살리기 추진과제

1

소상공인,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활성화 시책 강화

- ◆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 추진
- ◆ 상담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·운영

(1) 소상공인 융자 지원 확대(4,000억원) * 3,570+430억원

- 당초 계획자금 5,500억원 중 3,570억원 상반기 신속집행('20년 5,500×65%)
- 또한, 소상공인 대상 신규 자금 430억원을 조성하여 추가 지원

- 업체당 5천만원에 대한 보증수수료 0.3% 인하(현행 0.8% → 0.5%)
- 이자보전금리 : 2%(2년 거치 일시상환), 만기도래자금 1년간 보증기간 연장

※ 아산시 소상공인 이자보전금 1% 확대(현행 2.0% → 3.0%)

- '19년 소상공인 자금지원 실적 : 1,300억원 / 4,481개 업체 지원

(2) 중소기업 「긴급 경영안정자금」 지원 확대(2,624억원) * 2,015+609

- 당초 계획자금 3,100억원 중 2,015억원 상반기 신속집행('20년 3,100×65%)
- 또한, 중소기업 대상 신규 자금 609억원을 조성하여 추가 지원

- 이자보전 : 2%(2년 거치 일시상환) / 보증수수료 0.5%(0.3%↓)

※ 금융위 발표(2.7) : 중소·자영업자 대상 2조원 금융지원과 연계 지원

-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(충남경제진흥원, 충남신용보증재단 內)
 - 금융애로 상담 및 적합한 금융기관 지원상품 및 기관 등으로 연계
 - 업종의 피해정도 및 동향을 면밀히 파악, 필요시 지원범위 확대

(3) 1인 자영업자 「고용보험료」 지원(0억원 → 1.5억원)

-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제공(700명)
 -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% 지원(1~7등급), 1.5억원

※ 보험혜택 : 기준보수액의 50% 실업급여 지급(90~180일),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등

[4]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

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(122억원 → 410억원)

○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

-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(두루누리 사업 참여 조건)

※ 월별 보험료 사업자 선납 → 분기별 정산하여 소급 지원

○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일정액 지원 / 근로자 36,000명 목표, 410억원

※ '19년 실적 : '19년 1~3분기 121.7억원 지원(사업장 7,831개소, 근로자 22,374명)

②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(3억원 → 6억원)

○ 공적 공제가입을 촉진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 제공

- 도내 소재 소상공인(연매출액 3억원 이하) / 8,787업체 / 6억원

※ 지원협약체결 → 공제가입 → 서류검토 → 지원금 지급

○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매월 1만원을 장려금 추가 적립(연간 12만원)

※ '19년 실적 : 사업비 300백만원 / 4,383업체 가입장려금 지원

③ 내수 활성화를 위한 “충남 지역화폐” 발행규모 확대(473억원 → 1,556억원)

○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

-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: 14개 시군 473억원 → 15개 시군 1,556억원
-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확대 : 2개 시군(공주, 부여) → 15개 시군

○ 충남 농어민수당 지역화폐 지급, 가맹업종 다양화 및 가맹률 제고 등

※ '19년 : 조례 제정(4월), 1,243백만원 지원 워크숍(4회), 지도점검 농어민수당 지급 지역화폐 제안

④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(5억원 → 6.6억원)

○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역량 강화(12개 사업 / 495업체) : 665백만원

-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, 보부상콜센터, 경영환경 개선,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, 역량강화 교육, 아이디어 공모전 등

※ 선정절차 : 대상자 공모 → 선정 → 사업시행 → 사업평가 → 환류

◆ 부품기업의 수급애로 해소 및 중장기 수급안정화 추진체계 구축·운영

[1] 상시 경제동향 모니터링 등 수급위기 대응 체계 강화

- 충남 경제동향분석센터 → 일일 관련 경제동향 수집·분석
- 충남 TP → 자동차, 디스플레이 등 관련 도 주력 산업분야 동향 수집·분석

[2]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해소

- 기업애로 접수창구 설치·운영(충남경제진흥원)
 - 기업피해 접수 및 애로사항, 컨설팅 지원, 건의사항 접수 등
- 도-TP간(특화센터) 대응 대책반 TF 가동(산업육성과 내)
 - 중앙정책 정보 공유, 기업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 상시 모니터링
 - ※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(611개) 피해현황 조사(1.30~), 도내 중국연관 디스플레이기업 의견 청취 중
 - ↳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조사결과(2.12. 현재) 103개 기업 응답(정상가동 83개, 부분가동 14개, 가동중단 6개)
- R&D 과제수행 지원창구 운영(충남테크노파크 내)
 - 전문가(3명) 상시 배치, 기술·경영·수출상담 지원

[3]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 강화

-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부품분야 기술역량 강화
 - R&D 과제(101억원) 및 비R&D과제(26억원) 지원
 -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&D지원 체계 구축(7억원)
 -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사업 지원사업(5억원)
-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
 - 매출채권보험료중 도비(16억원, 50%) 지원
- 자동차부품기업 거래선 다각화를 위한 세계화지원사업 추진
 - 수출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부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(5억원)
- 자동차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
 -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(총 86억원), 소형 전장용차개발 부품기업(총 80억원)

《 현황 및 전망 》

- (수출) • 1월 - 수출 433억 달러로 전년동기 $\Delta 6.1\%$ (조업일수 반영시 4.8%증가)
 - 2.1~2.10 - 수출 107억달러로 전년동기 69.4% 증가
 - ↳ 그러나 조업일수 기준으로 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기 $\Delta 3.2\%$
- (전망) 코로나19 지속 확산시 충남 대중국 수출 약 5% 감소 전망
 - ※ 中 경제성장률 1%p 하락시 韓 명목 대중국 수출 1.6%p하락(현대경제연구원)

[1]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및 맞춤형 수출 지원

- 신속 대응을 위한 「도내 수출기업 현장방문 조사」 실시
 - 도내 기업 방문, 수출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민원 파악 및 맞춤형 대책 마련
 - ※ 현장방문 : '20. 2. 6. ~ 2. 19.(14일간) / 국제통상과장 등 10명
- 수출유관기관 「수출위기극복협의회」 구성·운영(2.13~)
 - 도(경제실), 수출유관기관, 주요 품목별 기업대표 등 20여명 구성
 - 수출기업의 피해상황 공유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, 지원시책 마련
- 「수출기업 피해사례 조사」 접수 창구 운영(사태 종료시 까지)
 - 접수 : 도·시·군, 수출유관기관 ※ 20. 2. 11. 현재 : 14개 기업 피해사례 접수 처리中
 - 임무 : 수출피해 사례 각 기관간 공유, 사례에 맞는 기관별 맞춤 지원
 - * 도내 전체 수출 2357개사 중 대중국 수출기업 1,225개(52%)
- 신남방 통상지원 강화로 수출 통상국 다각화
 - ASEAN, 인도, 중동(바레인), 러시아 등 유망시장 개척 다각화
 - * ASEAN, 인도 등 신규 협력, 한-중-러 협력채널 구축, 해당지역 중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확대
 - 인도·베트남 현지 통상사무소 개소('20. 2월부터)로 도내 기업 진출 입체적 지원
 - 인도·베트남 등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對중국 무역의존도 낮추는 계기 활용
 - * 우리도 총 수출 800억불 중 중국 235억불로 중국 편중(29.4%)

[2] 국내외 투자 유치 강화

-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(12개사)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
 - * 바이오(제약포함), AI, 5G(IoT, 로봇, 자율주행), 반도체 전장부품 등 타깃기업 설정
-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 위한 입지지원 등 강화
 - 상반기 : EU지역, 미국, 일본, - 하반기 : 중동 지역으로 확대
-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 국내기업 유치 강화(750개사)

◆ 소비·투자사업(SOC)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

[1]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-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상반기 3조 8,020억원 신속 집행
 - 집행 가능한 사업재편 등 계획적 추경 편성 / 실국 신속집행 상황 정기적 점검
 - ※ 1분기) 인건비, 물건비 등 소비 투자예산 3,030억원 집행

[2] 코로나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방안 강구

- (대상)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·간접 피해자(ex 의료, 여행, 숙박, 음식업 등)
 - 판매의 급격한 감소, 재고의 누적, 매출 채권의 회수 곤란, 조업중단, 기타 자금 경색
- (지원) 납부기한 연장,징수유예(1년 범위내), 체납처분 유예(1년 범위내), 세무조사 연기, 납부금 분납, 지방세 감면 등

◆ 코로나19 관련 전통시장 등 소비위축 대응

[1]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(80억원)

- 비가림 시설, 편의시설 설치, 창업 지원 등 시설·경영 현대화 지원

[2] 전통시장, 상권활성화 구역 코로나19 확산방지 물품 지원(3.3억원)

- 마스크 20만개, 손세정제 16천개 / 1만개 점포(17,422명)

[3] 농식품 소비위축에 대응한 인터넷 온라인, 택배 유통경로 활성화

- 충남오감,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의 온라인(쿠팡, CJ) 유통 유도
- 시군 학교급식센터의 농축산물 특식제공 등 적극 소비 권장
- 코로나 여파로 꽃 소비 감소 대응 등 공공기관 「꽃 소비 촉진 캠페인」 전개

◆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산업 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 대책

[1] 시군과 연계한 중앙정부 관광 공모사업 적극 유치 추진

- 「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」 공모 대응 강화
 - 사업규모 : 200억원(국100, 지방비100), 전국 8개 기초단체 선정
 - ※ 우리도 3개 시군(아산시, 논산시, 부여군) 후보로 추천, 문체부 정책적 배려 건의
- 「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통합 공모사업」 대응 강화
 - 사업규모 : 5개 분야 11.3억원(국5.65, 지방비5.65), 분야별 15개 이내 기초단체 선정
 - ※ 우리도 5개 분야 10개 시군 응모, 앞으로 서류, 현장평가 예정

[2] 대형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매력적인 충남관광지 조성

- 「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」 국비확보 및 사업진행 독려
 - 사업규모 : 11개 사업, 1,800억원(국800, 지방비1,000), '17~'26(10년간)
 - '21년 국비확보(100억원) 및 9개 사업(공사추진 5, 실시설계 4) 정상추진
- 관광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정상 추진
 - 사업규모 : 13개 시군 32개 사업 392억원(도226, 시군비166)

[3] 코로나 종료를 대비한 선제적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

- 계룡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극대화
 - 관람객 131만명(내국인124, 외국인7) 달성을 위한 국내외 전방위 홍보활동 전개
- 시군 연계 관광상품 확대 및 해외시장 동향 수집 등 준비 철저
 - 광역투어버스운영 확대(5개 시군 14개 코스, 10,300명 → 13,000명)
 - 중국, 중화권, 일본, 동남아 대상 설명회, 박람회, 팸투어 실시

[4]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알선 및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경영 지원

- 그동안 숙박업 등 시설개선 투자에 한하여 저리 융자지원
 - 여행사 및 숙박업 등 여행관련 업체 융자(1%대) 확대 검토중(문체부)
 -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광업계 안내 철저

◆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위축 → 생산감소 → 고용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적극적 고용시책 추진

[1]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대응

- (고용동향 모니터링 강화) 고용노동청 및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
- (단기 일자리사업 확대)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등 조기 추진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추가 발굴 지원
 -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(85개), 519명 / 40억

- (1유형) 지역자원 활용형 :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 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관광자원 활용사업
- (2유형) 지역기업 연계형 :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⑥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
- (3유형) 서민생활 지원형 : ⑦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⑧ 다문화가정 지원사업
- (4유형) 지역공간 개선형 :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.시설활용 사업

- 공공근로사업(4,227명) / 171억
- (고용서비스 연계 및 강화) 취업지원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업알선 및 취업박람회 등 현장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 사업 확대 추진
 - 광역·기초의 16개 '취업지원센터'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업 알선 강화

[2]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

- (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) 고용위기 '前'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감과 체감도 제고
- (지원사항) 연간 30~200억원(최대 5년간)을 지원하는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
 - 지역 자체 발굴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
 - * 직업훈련, 고용서비스, 일자리창출, 고용환경 개선, 창업지원 등

[3]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지원

- 도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우수·강소기업과 만남의 장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으로 고용률 향상 도모
- 사업비 : 228백만원(도비 100%)
- 사업내용 : ① 道 일자리박람회 1회 개최 ② 시군·유관기관 박람회 부스 시설비 일부지원(2~8백만원) 및 구인·구직 상담 지원
③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(충남정책홍보부스 운영)

[4]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

- 충남지역 고용창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혁신 선도 일자리사업 모델 발굴·추진
- 사업비 : 3,534백만원(국비 2,650 / 도비 884)
- 사업내용 : 지역고용혁신단 운영지원 및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등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

- (프로젝트 A)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고용안정화 지원
- (프로젝트 B) 근로시간 단축 정책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
- (프로젝트 C) 기술 국산화를 위한 충남 특화산업 지원

[5] 사업장 휴업 및 노사분쟁 동향 파악 등 노사상생 적극 지원

- 유관기관 및 노동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- 대전고용노동청(노사상생지원과 협력), 노동계 동향 파악

[6] 휴업신청 및 휴업에 따른 갈등예방 지원단 운영

- 휴업신청 지원단 : 노동권익보호관 등을 활용한 노무컨설팅 지원
- 갈등예방 지원단 :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지원단으로 운영

◆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 등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감시 강화

[1] 방역물품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

○ 매점매석 신고센터 및 단속반 운영 : 4개 시군, 8개 업소 단속

- 설 치 : 소상공기업과 물가대책상황실 / 시군 물가담당부서

- 주요임무 : 매점매석·접수 및 처리(현지 확인 등), 단속반 운영

* 7명(총괄 1, 단속 6) ※ 총괄반장 : 경제실장

※ 현재까지 4개 시·군 8개 업소 단속결과 특이사항 없음(2.12.기준)

⇒ 혼란을 악용하여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및 철저한 예방 노력

[2] 코로나19 대응 소비자 피해 대응 및 권익 보호

○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 상담실 운영(상시)

- 소비자분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밀착형 소비자 문제해결 및 소비자 피해 다발분야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운영 등

○ 소비자 피해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 및 소비자 단체와의 공조강화

-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(2.11), 소비자피해 대응 소비자단체 성명발표(2.13)

- 위기정보 해제시 도내 소비자 단체「전통시장 릴레이 안전 장보기」 실시

[3] 금융 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으로 민생 경제 안정

○ 금융 소외계층 긴급자금 소액대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 도모

- '20. 1. ~ 2024. 12.(5년) / 20억원(도비 100%) ※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

※ '20~'23년까지 매년 5억원 지원, 절차: 도(위탁) → 충남신용보증재단(대여) → 신용회복위원회(운영)

-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 상환자에 생활비, 병원비, 학자금 등 긴급자금 소액대출 지원

지역경제 활성화 대책		1조 4,945.5억원
(1) 중소기업,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활성화시책 강화		8,604.1억원
▪ 중소기업 「긴급 경영안정자금」 지원 확대		2,624억원
▪ 소상공인 용자 지원		4,000억원
▪ 1인 자영업자 「고용보험료」 지원		1.5억원
▪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		1,978.6억원
(2) 자동차, 디스플레이 등 도 주력산업 위축 대응		321억원
▪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부품분야 기술역량 강화		134억원
▪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		16억원
▪ 자동차부품기업 거래선 다각화를 위한 세계화지원사업		5억원
▪ 자동차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 공모사업		166억원
(3) 수출통상 지원 및 투자 유치 강화		35.5억원
▪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및 맞춤형 수출 지원		35.5억원
(4)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및 지방세 지원방안 강구		3,030억원
▪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		3,030억원
(5) 전통시장 등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 활성화		83.3억원
▪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		80억원
▪ 전통시장, 상권활성화 구역 코로나19 확산방지 물품 지원		3.3억원
(6) 관광업계 피해 극복을 위한 관광활성화 및 지원		2,403.0억원
▪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		200억원
▪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통합 공모사업		11.3억원
▪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		1,800억원
▪ 관광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		392억원
(7) 고용위축 대비 적극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강구		448.3억원
▪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대응		211억원
▪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		200억원
▪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지원		2.3억원
▪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		35억원
(8) 불공정 거래행위 및 소비자피해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		20억원
▪ 금융 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으로 민생 경제 안정		20억원
합 계		1조 4,945.5억원

1 관광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회의 개최

- 충남대책본부 현장 운영(도지사 집무실, 상황실, 숙소 등), 현안보고, 회의·간담회 등 도지사 모든 집무 진행
- 각종 행사, 워크숍, 세미나, 회의 등 아산시 개최 협조
 - 도 및 산하기관, 사업소, 중압부처, 전국지자체 행사 개최 협조
- 국내외 관광사업(관광설명회, 팸투어, 관광홍보전 등) 개최
 - 전국 관광관련 업체 및 종사자 아산시 방문 유도로 아산 관광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가 효과 기대
- 아산시 등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지원
 - 문체부 「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」 아산시를 포함한 3개 시군 추천, 3개 시군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- 관광관련 민간단체와 협력 지원방안 강구
 - 충남관광협회, 충남관광협의회를 통한 관광업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

2 고용·노동법관련 교육 지원

- 신정호 상인회 경영위기 극복방안 설명회 개최(2.11/ 공인노무사 교육)
 - 노동시간 단축, 휴업,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원 등 설명
- 노사분쟁 예방지원단 운영
 - 노사분쟁의 문제점을 파악 후 전문가를 통한 해결지원

3 중소기업,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

- 아산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이자보전 우대
 - 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3% 특례 적용(※ 타 시군 2%)
 - 아산시 피해기업 금융기관 협약자금 이자보전 3%이내 특례 적용
-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(2.7)
 - 업무협약 : 2건(아산시·농협은행·충남신보/ 아산시·하나은행·충남신보)
 - 출연금 : 8억원(아산시 4, 농협은행 3, 하나은행 1) 이자보전 3%이내
 - 보증서 발급 : 96억원 보증지원**(충남신용보증재단)

4 시장 현대화 사업 등 현안사업 지원 검토

-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, 온양온천시장 아케이드, 지역 화폐 발행 확대 등

사 업 명	건 의 내 용	검 토 의 건
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	국비 40억원 추가 지원	아산시와 협력, 국비 지원 건의
온양온천시장 아케이드 보수	국비 1.5억원 지원	- 아산시와 협력, 국비 지원 건의 - 도 자체사업 신청 시 적극 검토
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활성화 추진	국비 21억원, 도비 9억원 지원 - 300억원 확대발행의 보전금	- 국비 건의와 증액 발행 시 도비 1회 추경에 반영 추진

1 중소·중견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

※ (대상) 코로나19 관련 직·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·중견기업 및 소상공인(업종제한 無)

* (예시) ① 對中 교역 중소중견기업, 소상공인(수출기업,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)
② 운송물류, 관광·여행, 음식숙박·공연 등 **영향업종** 內 중소중견기업, 소상공인

① (정책금융 공급)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기존대출·보증에 대한 연장 및 신규취급

① (대출) 기존대출은 전액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(최장 1년), 신규대출 확대에 피해기업의 운영자금 지원

- (보증) 기존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, 신규보증 제공 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차감 등 우대 제공

- ✓ (산업은행) 중견·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, 중소 50억원
- ✓ (기업은행) 중소·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, 최대 1.0%p 금리감면
- ✓ (신용보증기금) 보증비율 : 85% → 90%, 보증료율 : 0.2%p 인하, 심사 간소화
- ✓ (수출입은행) 중견 0.3%p, 중소 0.5%p 금리감면
- ✓ (중소기업진흥공단) 기업당 최대 10억원
- ✓ (기술보증기금) 기업당 최대 3억원, 보증비율 95%, 보증료율 1.0% 고정

② (수출입 금융) 중국 후베이 지역 봉쇄에 따른 대금결제 및 물품인도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 경감

- ① (수출기업)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, 매입외환 입금 지연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
- ② (수입기업)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(최장 1년)

③ (조기 집행)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·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금융* 조기 집행

* '20년 공급계획(조원) : (산은) 45 (기은) 51 (신보) 50 (수은) 28 (중진공) 5
(소진공) 2 (기보) 21 (지신보) 26

② (은행) 對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및 관광·여행·숙박 등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 중

* 5대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

√ (A은행) 기업당 5억원 신규(총 1천억원), 최대 1.0%p 금리감면, 기존대출 기한연장 등

√ (B은행) 기업당 5억원·개인당 1억원 신규, 농업인 최대 1.7%p 금리감면 등

2 전통시장·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지원

① (전통시장 지원)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해 미소금융 대출 규모 50억원 확대(500억원 → 550억원)

√ (대상) 기초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(전국 318개)의 영세상인

√ (조건) 1인당 1천만원 한도, 만기 최장 2년, 금리 4.5% 이내(상인회 자율 결정)

② (신규자금 공급)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, 특례보증 등을 통해 운영자금 등 지원

√ (서민금융진흥원) 저신용(6등급이하)·저소득(차상위계층이하) 영세자영업자 대상, 1인당 최대 2천만원, 최장 5년, 금리 4.5% 이내로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

√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대 0.7억원, 2.0% 고정금리

√ (지역신용보증재단) 기업당 최대 7천만원, 보증비율 100%, 보증료율 0.8% 고정

√ (기업은행)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억원, 최장 8년, 최저 1.5%의 초저금리 대출 공급

③ (카드사) 피해 우려 영세·중소가맹점(연매출 5억원 이하)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

√ (C社)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,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,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

√ (D社)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, 소비영향 분석 지원,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

√ (E社) 연체 시 6개월간 채권회수 중지,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연체료 등 전액 감면

⇒ 중소·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2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

3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

□ 혼란을 악용하여 자본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 및 철저한 예방

○ (거래소) 금융시장 內 품문 유포·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법·불공정 거래 등 각종 시장교란행위 점검·단속 강화*

* 1.20 ~ 2.5일 동안 품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하여 33회 시장경보 조치

- ① (품문 감시 강화) 사이버상 품문 수집을 강화하고,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을 위해 관련계좌 등을 집중감시
- ② (투매종목 조회공시요구) 품문·미확인 정보에 따른 무분별한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매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회공시요구
- ③ (예방조치 수준 상향) 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시세하락을 초래하는 불건전 주문(허수 등) 포착 시, 유선·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'수탁거부 예고' 실시
- ④ (공매도 수탁규정 점검) 공매도 상위 회원 등 실지 감리를 통해 공매도 규정위반 여부를 집중점검, 위규 적발 즉시 관계기관 통보

○ (금융위·금감원)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*를 지속

* 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혐의사실을 포착하여 금융위로 통보하면, 금융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루머 대응이나 조사 실시

4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

□ 코로나19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 「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」 內 전담창구 운영

○ 각 정책금융기관의 영업점포에도 피해기업 전담상담을 위한 창구를 설치·운영

⇒ 코로나19 관련 중소·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적합한 금융권 지원상품 및 기관 등으로 연계

○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업종의 피해정도 및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, 필요시 지원범위 및 대상 등을 확대

◆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기업의 추가적인 자금애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장안정 방안을 준비

5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

□ 지원대상

-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* 직·간접 피해자

* 예: 의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식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
□ 주요 내용

- (기한연장) 취득세,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·납부기한 등을 6개월(최대 1년) 범위 내에서 연장(「지방세기본법」§26)

<예시> 부동산 매매계약 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

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(1.30.)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,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·납부기한(3.30.)을 연장받을 수 있음(6개월, 1회 연장, 최대 1년)

- (징수유예 등) 자동차세·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징수유예,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(최대 1년) 범위 내 유예(「지방세징수법」§25, §105)

<예시> 코로나19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

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(1기분, 6.16.~30.)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(6개월, 1회 연장, 최대 1년)

- (지방세 감면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,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* 조치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§4)

* 장기 피해 의료기관, 생계 곤란 확진자·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(자동차세 등)

- (세무조사 유예)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(「지방세기본법」§83)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, 업종,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

지원기관	프로그램명	지원대상	지원한도(억원)
산은	경영안정지원자금 *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, 중견 70억원, 금리감면 無	중소·중견	2,000
	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*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, 중견 70억원, 최대 1.0%p 금리 감면	중소·중견	1,000
기은	특별지원자금 * 기업당 최대 5억원, 최대 1.0%p 금리감면	중소· 소상공인	1,000
수은	수입선 다변화 대출 * 최대 중소 0.5%p, 중견 0.3%p 금리감면	중소·중견	5,000
	신규 운영자금 지원 * 최대 중소 0.5%p, 중견 0.3%p 금리감면	중소·중견	5,000
중진공	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* 기업당 최대 10억원	중소	250
소진공	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* 기업당 최대 0.7억원	소상공인	200
신보	우대보증 프로그램 * 보증비율 상향(85% → 90%), 보증료율 최대 0.2%p 차감, 심사절차 간소화	중소· 소상공인	3,000
기보	특례보증 프로그램 *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(85% → 95%), 보증료율 1.0% 고정	중소· 소상공인	1,050
지역신보	특례보증 프로그램 * 기업당 최대 0.7억원 보증비율 상향(85% → 100%) 보증료율 0.8% 고정	소상공인	1,000
계			19,500